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김형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전제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는 반세기의 역사를 축적했고, 지난 20여 년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중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에 관한 양적 분석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연구의 양적 증대와 주제 확산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남아 연구를 전문으로 삼는 양대 학술지 분석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연구의 내적 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심지어 심화되고 있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학자들과 비외대 출신 학자들의 분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과 이공계열 연구자들의 분리가 그것이다. 인도네시아 연구자 집단 내부의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초대학적으로 연결된 후속 세대의 육성, 학문계열 간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 추진, 대중들의 접근성이 높은 단행본 집필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동남아 연구, 학문적 칸막이

I. 머리말

올해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가 40주년을 맞이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군도국가이자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체제다. 풍요로운 자원과 생태,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 역동적인 국가형성, 경제성장,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에게도 인도네시아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6대 수출 대상국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해외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이래 오늘날 5만여 한인들이 최대의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3년 상반기 학술워크숍(2013. 5. 22)에서 발표한 초고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정도로 한인투자가 계속 증대했다. 한국 자본주의를 가동시키는 이주노동자들을 주력으로 하는 4만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8위의 외국인집단을 형성했다. 인도네시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국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하며 동아시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 외교의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외교관계 40주년이라는 뜻 깊은 시점에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도 인도네시아 연구자로서 나름대로 양국관계의 발전을 기념하는 방법일 수 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는 반세기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요약하면 적절할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962년에 인도네시아에 관한 첫 번째 석사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고, 1964년에 일본서적을 번역한 수카르노에 관한 책이 인도네시아에 관한 첫 번째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964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창설하여 언어교육을 시작했으며, 1968년에 첫 학술지 논문이 게재되었고, 1983년에 인도네시아를 단일사례로 다루는 첫 번째 박사 학위 논문이 등장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연구는 꾸준히 성장했으며 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분석도 1962년부터 2012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발표된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대상으로 한다.

범위가 방대하므로 우리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량적 분석을 중심 방법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인류학자인 김형준이 학위 논문, 단행본, 그리고 동남아 연구를 전문 분야로 삼는 두 종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했고, 정치학자인 전제성이 전체 학술지 논문을 분석했다. 우리는 분석 과정에서 국내 인도네시아 연구의 양적인 팽창이 지속됨을 확인하는 동시에, 학계 내적 분리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김형준이 한국외대 출신과 비외대 출신의 분리 현상을 분석했고, 전제성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분리 현상을 분석했다. 자료의 공유와 거듭되는 순환적 교정과 의사소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 학술워크숍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분석과 해석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¹

¹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고 정리해 준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김현경 양, 아시아 지역연구 기획 시리즈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연구사를 제안하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

II. 외적 팽창의 지속

1.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특성

해외 지역연구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이 본격화된 시기는 1990년대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연구자가 지역연구에 개입하는 방식은 기존 분과 학문에서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특정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확장시켜 해외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다. 둘째, 특정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주변 지역을 비교연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존의 관심을 주변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우다. 셋째, 비교론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연구자가 특정 지역을 새로운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다. 넷째, 한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그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지역연구 개입 방식은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두 기준에 의거하여 광의의 인도네시아 연구자를 선별했다. 첫째, 박사 학위 논문 주제의 전체 혹은 일부로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경우, 둘째, 한국동남아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동남아시아연구』에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을 게재한 박사급 연구자의 경우다. 전자는 연구자의 원래 학문적 관심을 보여 주는 근거로, 후자는 연구자의 인도네시아 지역연구 개입 의지를 보여 주는 근거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한 광의의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자 중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는 59명이었고, 이들의 학문적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광의의 인도네시아 연구자 중 타 지역을 전공했던 연구자(그룹 1, 2)는 11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데 비해 박사 논문에서 인도네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자(그룹 3, 4, 5)는 48명이었다. 이는 국내의 인도네시아 연

표 1 국내 인도네시아 연구자 분류

그룹	학문적 배경	인원
(그룹 1) 타 지역(전공)	박사 논문을 동남아 지역과 관련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을 『동남아시아연구』에 발표.	8명
(그룹 2) 타 동남아국가	박사 논문을 동남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했고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을 『동남아시아연구』에 발표.	3명
(그룹 3) 한국-인도네시아 비교	박사 논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하여 작성.	9명*
(그룹 4) 인도네시아-타 동남아국가 비교	박사 논문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 비교를 통해 작성.	10명**
(그룹 5) 인도네시아	박사 논문을 인도네시아만을 대상으로 작성.	29명

주: 그룹 3, 4, 5는 『동남아시아연구』에 논문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

* 1명은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연구

** 1명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외부의 다른 지역의 국가 비교

구가 이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역량을 갖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될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사 논문을 인도네시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그룹 5(29명)의 경우, 다른 그룹보다 인도네시아 연구를 위한 보다 높은 전문성과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문가(이하 '전문 연구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들의 전공 분야, 학문적 배경, 학위 취득 시기 등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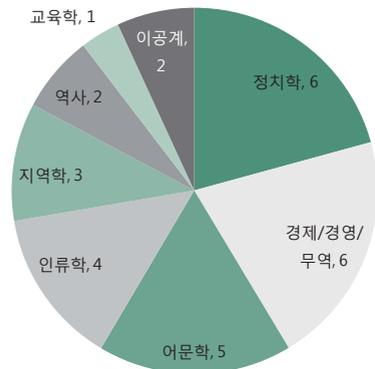


그림 1 박사 논문을 인도네시아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연구자(이하 전문 연구자)의 전공 분야

전공별로 볼 때 정치학 그리고 경제·경영·무역 분야 연구자의 비중이 높으며, 그 뒤를 어문학, 인류학 전공자가 차지하고 있다. 냉전질서 하의 비동맹권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가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은 두 분야 전공자들의 높은 비중을 설명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연구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역사학으로 학위를 받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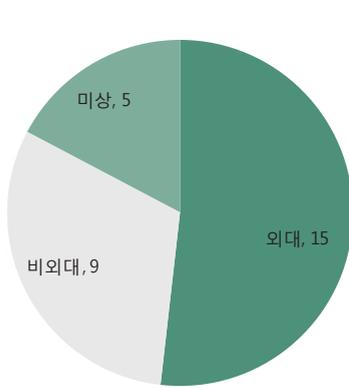


그림 2 전문 연구자의 출신 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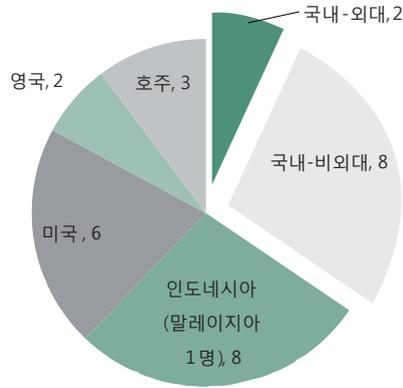


그림 3 전문 연구자의 출신 대학원(박사)

자가 2명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최근에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² 국내 동양사학계의 연구가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경향, 인도네시아어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어, 네덜란드어와 영어 등이 요구됨으로써 인도네시아 역사 연구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사실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학부 수준의 전공 교육을 행하는 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이며, 그 중 한국외대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가 더욱 오랜 역사를 가진다. 국내 인도네시아 연구의 짧은 역사, 학문적 관심 유발에서 학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연구 수행에서 현지어 습득이 가진 장점 등을 고려하면 29명의 연구자 중 한국외대 출신자가 다수를 구성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전체 전문 연구자 중 출신 학부를 파악할 수 없는(미상) 5명을 제외할 경우 15명이 한국외대에서, 9명이 다른 대학에서 학부 교육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므로, 그림 3에서는 이들의 대학원 교육 기관을 검토했다. 외국 학위자(19명)가 국내 학위자(10명)보다 많다. 가장 많은 연구자가 수학한 대학원은 인도네시아 소재 대학과 한국외대 이외의 국내 대학이며, 그 뒤를 미국, 호주, 영국 소재 대학 및 한국외대가

² 송승원은 2008년, 여운경은 2012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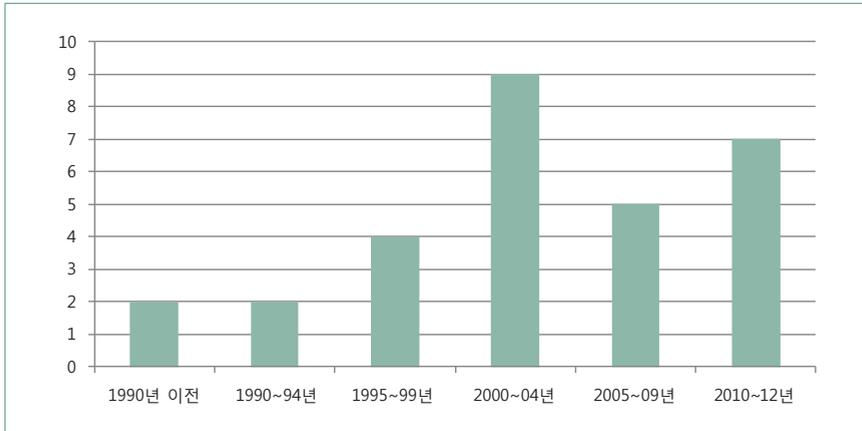


그림 4 전문 연구자의 학위 취득 시기

차지한다.

한국외대 학부 출신 15명 연구자들이 진학한 대학원은 인도네시아 7명(말레이시아 1명), 미국 3명, 한국외대 2명, 호주와 영국 각 1명 등이다. 이는 한국외대 학부 졸업생들이 자교의 대학원에서 수학하기보다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기를 선호했음을 보여 준다.

인도네시아를 연구 주제로 한 첫 박사 논문은 김영국이 1983년 경희대에 제출한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이며, 신윤환이 1989년 미국 예일대학에 “Demystifying the Capitalist State: Political Patronage, Bureaucratic Interests, and Capitalists-in-Formation in Soeharto’s Indonesia”라는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한국인에 의한 인도네시아 지역연구가 1980년대에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전문 연구자들의 박사 학위 취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1990년대 이후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학위 취득 현황을 정리했다.

1990년대를 통해 6편의 박사 논문이, 2000년대에 14편이, 2010~12년 사이 7편의 박사 논문이 제출되었다.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박사 학위 논문 작성에 보통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그림 4의 두드러진 모습인 2000년대 초반의 급증 양상은 1990년대 초·중반의 상황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즉, 세계화를 주요한 비전으로 설정한 김영삼 정부가 국제대학원 설립과 대학원

생 현지조사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 그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이 증가했고, 이는 2000년대 초반 박사 학위자의 급증을 결과했다.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2005~09년과 달리 2010~12년 기간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3년 동안 7명의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04년 시기와는 상이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이들 2010년 이후 박사 취득자가 대학원 교육을 받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확대된 시기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동시에 경험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인도네시아 민주화는 여러 영역에서의 연구 주제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 시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로 인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 확대와 관심 확장이 최근 박사 학위 배출자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이라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신규 연구자 증가 추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국내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가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증가 속도가 가속되고 있음은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학문적 재생산의 기반이 보다 확고하게 구축되었다는 가정도 가능하게 한다.

2.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한 국내 석·박사 논문

전문 연구자들의 현황은 지역연구의 현황을 보여줄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지만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학계 전체의 관심 수준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줄 대안적 자료 중의 하나는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하여 제출된 석·박사 논문이다. 이는 학위 논문 주제가 그 주제에 대한 학계의 전반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석·박사 논문의 추이는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학문적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평가할 지시계로 기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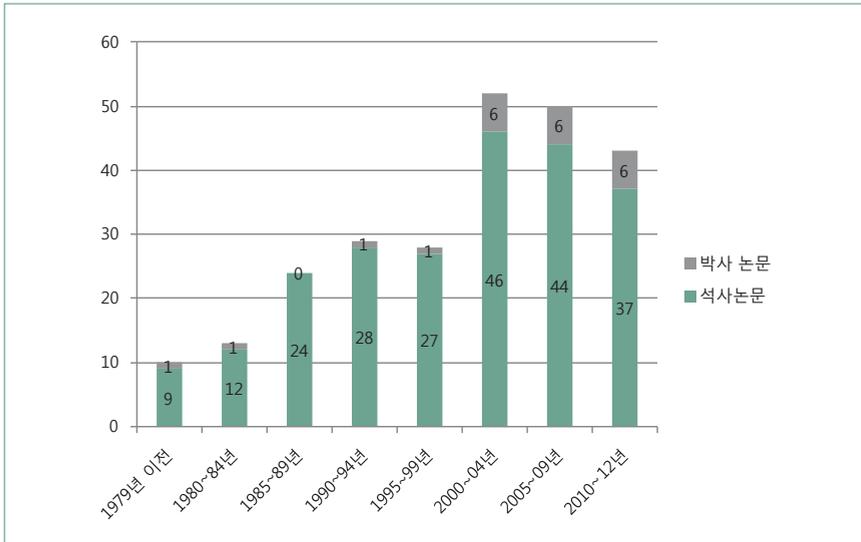


그림 5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 추이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첫 번째 석사 논문은 1962년 제출된 “한국의 신시장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고찰”(오진석)이다. 1970년대에 들어 경제를 주제로 한 석사 논문이 꾸준히 제출되었는데, 언어와 정치 관련 연구(안영호, 1976; 최봉호, 1973) 역시 한 편씩 선보였다. 흥미로운 석사 논문은 1976년 제출된 “산림개발사업에 있어서 원가계산제도에 대한 연구”(신명철, 1976)로서 당시 인도네시아산 목재 수입의 중요성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이 논문 주제 선정 과정에 투영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관련 석·박사 논문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1980년대 27편(박사 1편)이었던 학위 논문은 1990년대 들어 55편(박사 2편), 2000년대 들어 102편(박사 12편)으로 증가했다.³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³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논문은 ‘인도네시아’를 표제어로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자료이다. 일차적으로 자료 선별이 이루어진 후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등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지역명을 표제어로 사용하여 추가 자료를 획득했다. 이처럼 자료 수집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이 글의 검토 대상 자료가 인도네시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모든 석·박사 논문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위 논문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 연구자의 연구에 글의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학생이 국내 대

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는 석·박사 학위 논문의 꾸준한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연구자의 박사 학위 제출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2000년대 초반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건수가 급증하고 그 추세가 완화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2000년대 초반의 학위 논문 급증은 1990년대 지역연구 유행과 관련되며, 이후의 증가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 확대와 연결되는 듯하다.

석·박사 논문의 증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논문 배출 대학교의 다변화다. 1970년대 10편의 논문이 6개 대학에서 배출된 후 1980~84년에는 13편의 논문이 8개 대학에서, 1985~89년에는 24편의 논문이 10개 대학에서 발표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계속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18개 대학, 2000년대 전반에는 24개 대학, 2000년대 후반에는 25개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배출했으며, 2010~12년 사이 논문 수는 이전 시기의 50편보다 적은 43편이지만 학위 배출 학교는 25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그림 6 참조).

석·박사 논문 배출 대학교의 증가는 인도네시아가 국내의 다양한 권역에서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에 대한 관심이 전국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⁴ 인도네시아 전문 연구자가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배출 학교 증가는 인도네시아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상당수 석사 논문이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지역연구가 전문 연구자에 속하지 않는 학자에 의해서도 학문 활동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석·박사 논

학에 제출한 인도네시아 관련 석·박사 논문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⁴ 석·박사 배출 대학의 다변화와 함께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은 석사 논문 배출 건수에서 한국의 대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를 전공하는 거의 유일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한국외대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 전체 석·박사 논문의 30% 정도를 배출했다. 하지만, 1995~99년 사이 이 비율은 10%까지 추락했고,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전문 연구자의 경우와, 즉 한국외대 학부 출신 연구자의 대다수가 국외의 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학문 후속 세대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에 한국외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의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 졸업생의 용이한 취업이 대학원 교육에 대한 부정적 동기로 작용했으리라는 설명 역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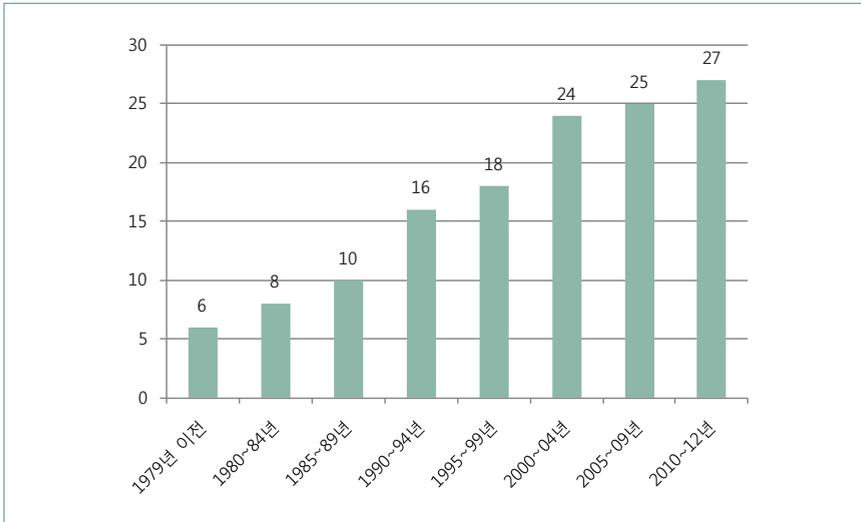


그림 6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배출 대학교

문 중 상당수가 인도네시아를 지역연구의 측면보다는 특정한 전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석·박사 논문의 연구 분야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 경제·경영·무역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논문 주제는 이후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선교와 이공계와 같은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 연구가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위 논문이 배출되고 있다. 2012년까지 발표된 249편의 석·박사 논문을 살펴보면, 경제·경영·무역 분야가 71편으로 가장 많고, 정치외교 분야가 48편, 사회문화가 41편으로 그 뒤를 쫓고 있으며, 이후 선교 관련 분야(39편), 어문학(23편), 이공 분야(18편), 역사(9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역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앞서 지적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사료된다. 석사 논문 제출 연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일정한 추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1985년 이전 시기의 경우, 경제·경영·무역 분야가 압도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며 다른 4개 영역의 논문 발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1985~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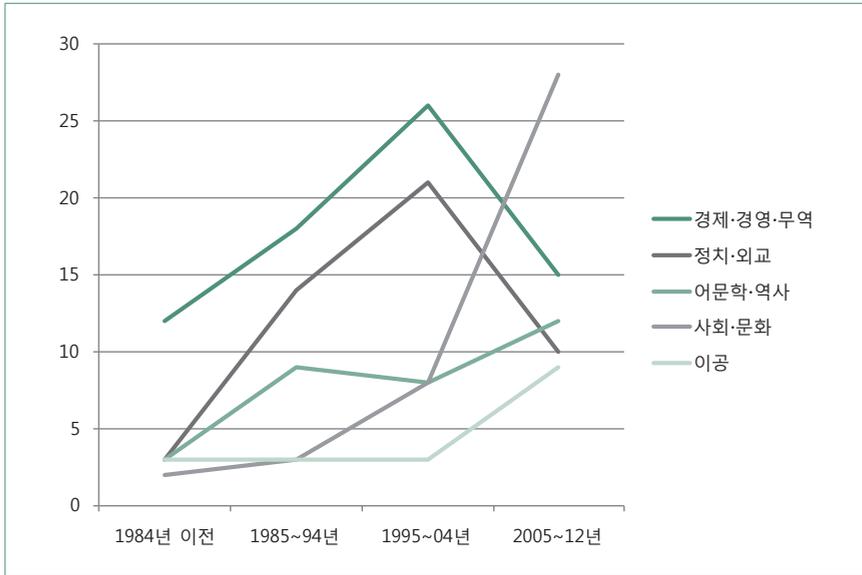


그림 7 5개 주요 분야의 연도별 석·박사 논문 제출 추이(논문 수 기준)

동안 경제·경영·무역 분야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와 어문학의 증가 추이가 감지되었다. 다음 시기인 1995~2004년에는 이전 시기의 경향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는 과거의 추세가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서, 경제·경영·무역과 정치외교 분야가 동반 감소를 보인 반면, 사회문화 영역의 논문이 급증했다. 어문학과 역사, 그리고 이공 분야 역시 증가세가 현저해져서, 두 분야에서 배출된 논문 수가 정치외교 분야의 논문 수를 필적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자료와 달리 그림 7에서는 분석 시기를 1985년부터 10년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분야별 학위 논문 제출 추이의 변화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지만, 5년 단위 혹은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자료를 정리할지라도 유사한 양상이 완화된 정도로 표현된다. 그림 7에서 드러나는 논문 주제 변화 추이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최소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경영·무역→정치외교→사회문화 분야’로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사회문화 영역’에 포함된 논문의 대다수가 사회학과 인류학 등 전통적인 사회문화 관련 학문 분야에서 배출되었다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⁵ 이런 의미에서 ‘사회문화’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나머지 4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를 총괄하는 광의의 범주라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와 관련된 관심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⁶

요약하면, 국내 석·박사 논문 배출은 1970년대 이래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석·박사 배출 대학과 분야의 확대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초의 우세 영역인 경제·경영·무역 분야, 이후의 인기 영역인 정치외교 분야가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에 의해 양적으로 압도되는 모습이 최근 나타난다. 이와 함께 이공 분야 그리고 어학과 역사학 분야의 논문 역시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

인도네시아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 데이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 (<http://www.riss.kr>)에서 ‘인도네시아’를 제목에 포함한 글들을 검색한 후, 필자 불명의 글, 개황이나 뉴스 브리프, 교지, 단행본 수록 논문, 중복 게재 논문, 학술회의 발표문, 서평, 외국인 논문을 제외하여, 총 438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조사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해외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는 1968

⁵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성희롱 인식”(김민정, 2004, 사회복지학), “이주노동자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가족통제정책”(윤예림, 2007, 경제학),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김미향, 2011, 국문학), “이주노동자의 이주 전략”(유일상, 2011, 문화인류학) 등의 학위 논문이 제출되었다.

⁶ 2000년대 들어 석·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되어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대학원생에 의한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 제출의 증가다. 이 시기 동안 정부의 정책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대학원생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위 논문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들의 유학은 단순히 학위 논문 제출에 머물지 않고 주변의 한국 학생과 연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이들의 향후 행보는 국내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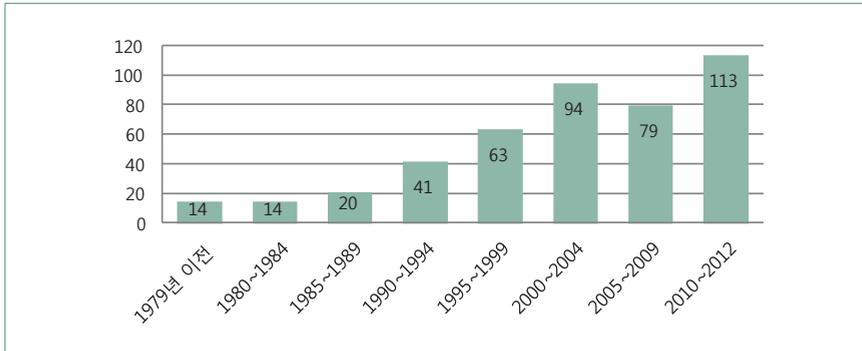


그림 8 인도네시아에 관한 학술지 논문 추이

년에 학술지에서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법정학보』 12호에 김순경이 게재한 “인도네시아 근대화와 수카르노”가 그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이듬해 “국가적 통합과 카리스마적 지배: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Sukarno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김우태의 논문으로 경북대학교에서 발간된 『정치외교학보』 창간호에 게재되었다. 그 다음해 이화여대의 『법정학보』 13호에 “인도네시아 여성운동개관”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세 논문 다 정치학 연구다. 1968년 이후 10년간 출판된 12편의 선구적 논문 중에서 정치학 논문이 절반을 차지하고 교육, 언어, 무역, 특허, 촌락공동체, 벼농사에 관한 논문이 한 편씩 포함되었다. 농업경제를 포함하여 경제 연구가 정치 연구에 이어 많은 수를 차지했다. 12인의 선구자 중에서 작금의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이 알 만한 분은 안영호 전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로서,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의 통일철자법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한국외국어대학교논문집』 9권 1호(1976)에 게재했다.

인도네시아에 관한 학술지 논문은 그림 8처럼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학위 논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대 전반기와 최근 3년간 확연하게 논문 수가 많았던 것도 학위 논문의 추세와 동일하다.

학술지 논문의 분야별 현황과 변화 추세는 표 2와 같다. 45년간 발간된 전체 논문의 총계를 보면,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고(103편), 이어서 정치외교

표 2 인도네시아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분야별 건수와 시기별 추이

	경상		정치 외교	사회문화		어문학		역사	이공	선교	합계
	경영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문학				
1979년 이전	1	2	6	2	1	1	0	0	1	0	14
1980~84	0	4	2	1	0	4	2	1	0	0	14
1985~89	0	6	5	1	0	5	0	3	0	0	20
1990~94	2	8	11	3	4	4	0	4	5	0	41
1995~99	7	10	12	8	9	2	2	3	9	1	63
2000~04	7	11	29	9	13	6	2	2	13	2	94
2005~09	3	6	18	7	14	7	3	4	16	1	79
2010~12	3	19	17	13	18	4	5	11	23	0	113
계	23	66		44	59	33	14	28			
총계	89		100	103		47		28	67	4	438

(100편), 경상계(89편) 순으로 많았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자면(이를테면 사회와 문화를 구분하면), 정치외교 분야가 최다였고 이공계가 두 번째로 많았고 경제, 문화, 사회, 언어, 역사, 경영, 문학, 선교 순으로 논문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공계 논문은 산림, 지질, 광물, 해양, 식품, 의류, 건축, 의학, 환경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경제와 이공 분야를 합쳐서 농업 관련 논문들이 꽤나 많이 목격되었다. 학위 논문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던 선교 연구는 학술지 논문 추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특이했다. 선교 연구자들이 ‘학문’보다는 ‘실천’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학과 역사 연구는 학위 논문의 경우처럼 소수였다.

학술지 논문의 시기별 변화를 관찰해 보았을 때도 학위 논문 추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에서 보이듯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서 정치 연구와 경상계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화(주로 문화) 연구가 비등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다른 모든 분야를 추월하여 최다 분야를 차지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이공계 연구도 두드러지게 계속 증가해 두 번째로 논문이 많은 영역을 차지했다. 정치와 경제 연구를 문화 연구와 이공계 연구가 양적으로 압도하는 시절을 맞이한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가 국제화되는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자. ‘최소주의적’ 검색만으로도 한국 출신 인도네시아 전문가의 외국 학술지 게재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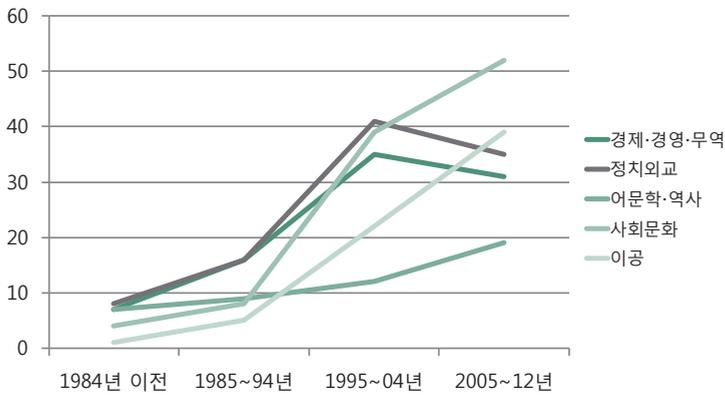


그림 9 인도네시아에 관한 영역별 학술지 논문의 시기별 추이

추세에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사례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다고 파악된 한국인 인도네시아 전문가들(부록에 논문 목록 제시) 중에서 영문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16명)만 구글 스칼라 사이트(scholar.google.com)를 통해 검색해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참고문헌 참조). 9명이 쓴 25편이 검색되었다(공저 포함). 처음은 신윤환(Shin, 1991)이었고, 김형준(Kim, 1998a; 1998b; 1998c)이 그 뒤를 이었다.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끊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외국 학술지 게재 건수는 1편, 4편, 5편, 7편으로 증가했고, 최근 4년간도 7편이나 되었다.

최소한의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이 국제화 가도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국제화는 더 이상 강조할 만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완전한 추세라는 것이다. 국제화는 국내적 지식 축적으로 환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해외에 논문을 게재한 인도네시아 전문가 9명 중에서 한글로 단행본을 낸 이는 3명뿐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동남아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또한 현지 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미미하다. 검색된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 인도네시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영어로 게재된 논문 두 편(Kim, 1998c; 2010) 뿐이었다. 물론 인도네시아 학술 데이터베이스화의 저급한 수준을 감안할 때 구글 스칼라 사이트에

서 연구자 이름 검색으로 파악되지 않는 현지어 논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인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국제화라는 것이 영어 구사가 가능한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을 장악한 업적 평가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국제화의 부작용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4. 인도네시아 관련 단행본

1990년대 이후 200여 편의 석·박사 논문, 400여 편의 학술지 논문이 인도네시아와 관련되어 출현한 것과 비교해 보면, 단행본 발행은 양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60년대 이후 30여 편의 학술 저·역서만이 발행되었으며, 여기에 정책보고서, 체험기(여행기/수필), 문학서 등을 추가할지라도 그 수는 100권에 미치지 못한다.

31편의 학술 저·역서는 정치 8종, 사회문화 7종, 어문학 6종(언어학습서 제외), 경제경영 5종, 역사 4종, 신학 1종으로 구성된다. 저·역서의 양적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 영역의 개론서가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출판되어 있다. 어문학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어학 개론』(안영호, 1994)과 『인도네시아 문학의 이해』(고영훈, 2004), 역사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사』(양승윤, 1994), 정치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양승윤, 1996),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양승윤 외, 1997)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론서는 문학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1990년대 중반에 출판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된 2000년대의 관심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개론서는 연구자의 오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에 기반을 두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적 관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반영한 저술이 인도네시아 지역연구를 장기간 수행한 학자에 의해 출판되었다. 신운환의 『동남아문화 산책: 신운환의 동남아 깊게 읽기』, 김형준의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양승윤의 『작은며느리의 나라: 양승윤 교수의 인도네시

표 3 인도네시아 관련 번역서

저자	번역서 제목	출간연도/역자
클리퍼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1998/문옥표
꾼짜라닝랏(편)	인도네시아의 독립종족사회*	2001/양승윤 외
가일스 밀턴	향료전쟁	2002/손원재
반 텐 엔드	인도네시아 교회사	2004/백성영
해롤드 크라우치	동남아 권위주의의 역사적 기원	2009/신윤환 · 전제성
야콥 수마르조	인도네시아 소설의 이해*	2009/김장겸
안드레 블썸 외	작가의 망명: 인도네시아의 대문호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와의 대화	2011/여운경
클리퍼드 기어츠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 인도네시아의 생태적 변화 과정	2012/김형준
우쓰미 아이코 외	적도에 묻히다: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2012/김종익

* 원저가 인도네시아어로 발행된 경우.

** 원저가 일본어로 발행된 경우.

『아 문화 산책』 등은 저자들의 지역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여러 현상을 검토한 글이다. 하지만 제목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저술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노력의 결과물이기보다는 현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현실을 분석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를 포함하지 못한다.

한국 연구자에 의한 저술이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서이다. 인도네시아 연구에 있어 고전이라 불릴 저술이 번역될 경우 지역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역서 출간은 저술보다도 오히려 뒤쳐지는 양상을 보여서 1990년대 이후⁷ 총 8권의 번역서만이 발행되었다.

표 3은 번역서가 양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연구를 대표할 만한 각 분야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번역서의 원저자

⁷ 1964년부터 1972년 사이에 수카르노 대통령의 평전(박종경 역, 1964)과 전기(신디 아담스, 1967, 1972)가 발간되었지만, 전기적 성격과 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 글의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에는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 쿤짜라닝랏(Koentjaraningrat), 해롤드 크라우치(Harold Crouch) 등과 같이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학자가 포진하고 있지만, 번역의 대상이 된 저술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이들의 핵심 저서가 아니다. 즉, 지역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을 클리퍼드 기어츠의 *Religion of Java*나 *Negara*,⁸ 쿤짜라닝랏의 *Javanese Culture*, 해롤드 크라우치의 *The Army and Politics in Indonesia* 등이 아닌 이들의 이론 중심적 저술이나 편저가 번역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저술과 번역서의 걸림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상당수 석사 과정 학생이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의 지도 아래에서 논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보면, 양질의 학술서 및 번역서의 부재는 이들 연구의 깊이를 심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전문 연구자의 꾸준한 증가 추이에서 나타나듯 단행본 출판을 위한 학문적 인프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단행본 발행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학술 단행본은 정책보고서, 체험기, 문학작품에 의해 추월되는 양상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출판된 비학술 단행본은 62종에 이르며, 최근에도 학술서보다 더욱 빈번하게 출판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기별로 본 이들 출판물의 발간 추이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보고서와 체험기가 학술서보다 많이 출판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이후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보고서의 경우 석·박사 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출간 기관의 다변화를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참여연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반면, 2000년대 들어 발행기관은 8곳으로 증가했으며 교육개발원, 여성정책

⁸ 기어츠의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는 인도네시아 농촌경제와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책이지만, 이후 그의 연구가 비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해 보면, *Religion of Java*와 *Negara*가 보다 넓은 독자층을 가진 저술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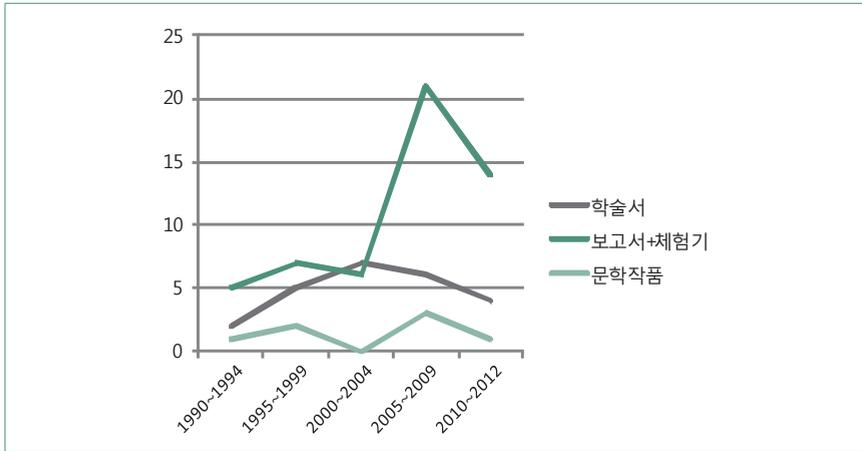


그림 10 학술서, 정책보고서/체험기, 문학작품 출판

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같이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체험기의 출판은 학술서에 버금갈 정도로 이루어져서,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거주한 대사관 직원, 유학생, 특파원, 기업 주재원 등 다양한 배경의 저자가 자신의 인도네시아 체류 경험을 단행본으로 발표했다. 학술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체험기가 인도네시아에 입문하는 연구자에게 쉽게 접할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수준의 이해로 이끌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다른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듯한 체험기 출판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학술서 부재가 체험기의 출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석·박사 논문 및 학술 논문과 비교할 때 단행본, 특히 학술서의 출판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학술 저서 및 역서 출판의 증가 추세,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한 보다 많은 정책보고서 출판 추이 등은 인도네시아 연구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단행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내적 분리의 심화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대표 학술지로는 한국동남아학회에서 간행하는 『동남아시아연구』와 한국의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동남아연구』가 있다. 두 학술지는 1990년대 초반에 창간되어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 논문 113편을 게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의 대표 학술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두 학술지의 발행 주체가 서로 다르고 국내 학자의 학문 활동이 일정 정도 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으로 인해 두 학술지 중 어느 편도 인도네시아 연구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아래에서는 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의 기고 성향을 검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리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⁹

앞 절에서 거론된 광의의 인도네시아 연구자 59명 중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하는 연구자는 『동남아시아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이며, 이들을 제외한 48명 중 『동남아시아연구』나 『동남아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28명(58.3%)이다. 인도네시아만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연구자로 제한시켜 보면 전체 29명 중 19명이 두 학술지에 글을 게재하여 65.5%의 게재율을 보였다. 광의의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은 학술지 선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그룹이 두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비교검토했다.

표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두 학술지에 교차 게재하는 학자의 수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으로써, 이는 전체 연구자의 8.5%, 두 학술지에 글을 실은 전문 연구자의 26%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을 가진 연구자 그룹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 그룹에서도 두 학술지에 대한 선호도가 차별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⁹ 본문에서는 두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자들의 기고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게재된 논문보다는 투고된 논문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게재된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표 4 광의의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학술지 게재(1992~2012)

그룹	『동남아시아연구』 에만 게재	『동남아연구』에만 게재	두 학술지 모 두에 게재	미게재
(그룹 1) 타 지역(전공)	4	4	0	0
(그룹 2) 타 동남아국가	2	1	0	0
(그룹 3) 한국-인도네시아 비교	0	2	0	7
(그룹 4) 인도네시아-타 동 남아국가 비교	6	1	0	3
(그룹 5) 인도네시아	5	9	5	10
계	17	17	5	20

표 5 두 학술지 투고자 중 한국의국어대학교 학부 출신 연구자

『동남아시아연구』에만 게재	『동남아연구』에만 게재	두 학술지 모두에 게재
1	14	5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요인의 하나로 학문적 배경을 설정한 후 연구자의 출신 학부를 한국의국어대학교와 기타 대학으로 구분했다. 두 학술지에 기고한 연구자 중 한국의국어대학 학부 출신자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동남아시아연구』에만 게재했던 17명의 연구자 중 한국외대 출신은 1명(정치외교학과 출신)뿐으로 이는 비한국외대 출신 연구자들이 학회 발행 학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동남아연구』에만 게재했던 17명 중 14명은 한국외대 출신이며 나머지 3명 중 2명이 현직 한국외대 교수, 나머지 1명이 한국외대 소속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실질적으로 17명 모두가 한국외대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외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동남아연구』에 한국외대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자만이 글을 게재해 왔음을 시사한다.

표 5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자료는 두 학술지 모두에 게재한 5명의 연구자가 한국외대 학부 출신자라는 점으로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한국외대 출신 연구자들이 두 학술지 모두에 대해 보다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다. 둘째, 비한국외대 출신 연구자들은 한국외대 발간 학술지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셋째, 『동남아시아연구』가 상이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

표 6 학술지 내, 학술지 간 교차 인용 빈도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한 논문	『동남아연구』 게재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한 논문
『동남아시아연구』	42편	9	0
『동남아연구』	71편	2	1*
합	113편	11	1

* 같은 학술지에 기 게재된 본인의 논문을 인용(자기인용)한 경우

에게 보다 개방적이며, 『동남아연구』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연구자나 학술지의 배타성을 보여줄 질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설명은 가설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표 5의 자료는 두 연구자 집단 간, 두 학술지 간의 간극이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자 집단 간, 학술지 간 분리 양상을 상이한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각각의 학술지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전체 113편)의 인용 상태, 즉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동일 학술지의 다른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빈도를 분석했으며, 표 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은 인용의 측면에서도 두 학술지 간 뚜렷한 분리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42편의 논문 중 『동남아연구』에 출판된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한 경우는 단 한 편도 없었으며, 『동남아연구』의 경우 71편 중 2편만이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이용했다. 이처럼 두 학술지 간 교차 인용의 빈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술지 내에서의 인용 빈도 역시 매우 낮았다.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42편 중 9편(21.4%)이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했다. 『동남아연구』의 경우 사정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71편의 논문 중 단 1편만이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도 필자가 자신의 논문을 이용한 자기인용에 속했다.

연구 분야별 차이로 인해 참고자료로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지라도, 전체 113편의 논문 중 12편(10.6%)만이 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학술지를 통한 학문적 교류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결론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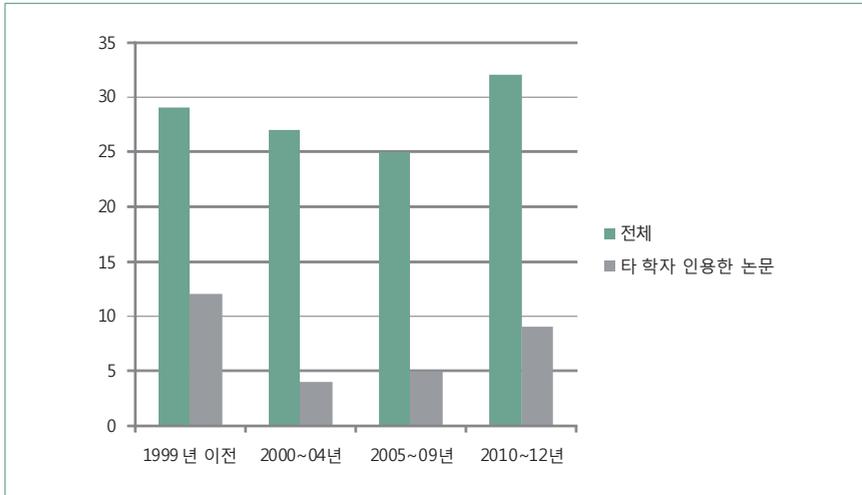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자 간 상호 인용 빈도: 연도별 추이

학술지 간 분리,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구자 간 분리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13편의 논문이 다른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연구 결과 일반을 이용하는 빈도를 알아보았다. 두 학술지로 제한하여 분석할 경우와 비교하면 타 연구자 인용 빈도는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42편의 논문 중 18편(42.9%)이, 『동남아연구』의 경우 71편 중 12편(16.9%)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켰다. 시기별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 연구자의 연구 결과 인용 상황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 1999년 이전에 출판된 29편의 논문 중 12편이 다른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그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인용빈도가 학문적 교류를 보여 주는 직접적인 지시계가 될 수는 없지만 학문적 교류가 인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을 고려해 보면, 이 자료는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가 연구자 수의 확대, 연구 결과의 양적 팽창과 발맞추어 증가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다른 연구자를 인용한 논문은 30편으로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일정한 인용상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별 인용 양상을 정리

표 7 연구자별 인용 순위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자*	가장 많이 인용한 연구자
양승윤(11회)	최경희(6인)
신윤환(7회)	전제성(5인)
김형준(7회)	김형준, 이동윤(4인)
전제성(6회)	박은홍, 최정욱(3인)

* 양승윤과 김형준의 경우 『동남아시아연구』와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모두 인용된 반면, 신윤환과 전제성은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글에서만 인용됨.

한 후 인용이 많이 된 경우와 인용을 많이 한 경우로 나누어 각기 네 명의 연구자를 선별했다.

피인용 순위와 인용 순위가 높은 연구자 목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10명 중 김형준을 제외한 모두가 정치학자라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고 비교 연구 전통을 가진다는 점 등은 정치학자들의 높은 인용/피인용 경향을 설명하는 요인일 듯하다. 이들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지역적 수준이 아닌 국가적 수준의 정치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인용 빈도를 뒷받침해 주는 요인일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들과 비교할 경우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전문 연구자에 포함된 4명의 문화인류학자의 연구지는 각기 족자까르따(Yogyakarta), 중부자바(Jawa Tengah), 리아우(Riau), 북술라웨시(Sulawesi Utara)와 같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상호 인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킨 듯하다.

문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인문학 연구자가 상위 인용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인용 빈도가 매우 낮은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 역시 문화인류학의 경우와 같이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으며, 연구자 간 비활성화된 교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인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낮은 상호참조 경향은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현상 중의 하나다.

요약하면, 『동남아시아연구』와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두 학술지 모두에 기고하는 연구자의 수는 제한적이며, 대다수 연구자들이 둘 중 하나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술지 간 분리는 연구자들의 인용 양상에도 반영되어서,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42편의 논문 중 단 한 편도 『동남아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을 정도로 분리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술지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 다른 인도네시아 연구자를 인용하고 있는 논문의 비율은 24.8%에 불과했다.¹⁰

학술지 간, 학자 간 분리는 인도네시아 연구자 간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관련 연구자와 연구 결과의 양적 팽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연구자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 나아가 학문적 논쟁이 입문자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보면,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연구에 포함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서구학계와 비교할 때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축적된 학문적 성과 역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한국 연구자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의 활성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다. 이를 통해서만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문 후속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연구 환경의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연구의 ‘칸막이 현상’은 한국외대 출신 연구자와 비외대 출신 연구자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문 계열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대학적 전국학회인 한국동남아학회의 학술지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연구 논문들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게재된 논문의 주제별 건수는 사회문화가 가장 많고 정치, 경상, 역사, 어문 순으로 수가 줄어들었다. 전체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추세처럼 한국동남아학회 학회지에서도 문화 연구가 강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곧 학문 분과의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문화 연구가 인류학자만의 연구 성과는 아니고, 정치 연구가 정치학자들만의 성과는 아니다. 인류학자가 정치

¹⁰ 연구자 간 학술적 교류의 부재는 비단 인도네시아 지역연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지역연구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2011년 기준 2년간 인용지수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연구』의 인용지수(IF)는 0.74, 『동남아연구』의 인용지수는 0.09이며, 자기인용을 제외할 경우, 각기 0.58과 0.03으로 감소한다.

표 8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인도네시아 연구 논문의 분야별 현황

사회문화	정치	경제·경영	역사	어문	이공	계
19	13	5	4	2	0	43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치학자가 경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적어도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학제적 통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과학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학회지에 게재된 인문학 논문이 희소한 상황이다. 연구자가 희소한 이유도 있고 학계의 분리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외대 출신과 비외대 출신의 칸막이 현상도 그 바탕에는 어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칸막이 현상이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전체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분류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바는 전체 학술지 논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이공계 논문이 한국동남아학회의 학회지에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완벽한 분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현상은 아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는 자연과학, 천문학, 의학 등과 인문사회과학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생명’과 ‘녹색’(환경)이라는 핵심어로 노령사회와 재난관리 같은 주제의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다(전제성, 2011). 이공계 연구자들이 성과를 다수 출판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우리도 폭넓은 학제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다만 서로 연결된 적이 없을 뿐이다.

사회과학 대 인문학의 좁은 다툼을 넘어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공조를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이공계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을 한국동남아학회 학술대회에 초대함으로써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농업, 산림, 광산, 해양, 질병, 건축에 관한 연구가 인문사회과학과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영역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러한 경계 영역의 연구를 시도한다면 이공계 학자들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는 지난 50년간 양적으로 팽창해 왔고 연구 분야도 확산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과학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공계 분야의 약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연구자로서 국가, 기업, 사회의 3섹터 모든 방향에서 인도네시아 연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몸소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의 연구 급증은 이러한 다각적 수요 증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공급이 늘고 있지만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인도네시아에 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연구자들 내부의 분리(칸막이) 현상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제안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은 우선, 외대 출신과 비외대 출신 사이에, 이어서 인문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이공계 연구자들 사이의 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심지어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학계에서 서로를 참조하고 인용하는 일종의 ‘인정 문화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지경이다. 학문 후속 세대는 초대학적이고 폭넓은 학제성을 습득한 세대로 육성되어야 한다. 기성학자들에게는 광범한 학제적 접점을 형성할 주제 영역에 도전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를테면 인류학자가 문학을 연구하고, 역사학자가 해양을 연구하고, 정치학자가 광산을 연구하는 식으로 말이다.

끝으로 우리는 학술지 논문의 처참한 인용빈도를 확인했다. 학술지 논문이 같은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참조되고 언급되지 않는다면 학술지 논문 출판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학계를 벗어나 학술지 논문보다 가독성이 큰 단행본 출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르게 된다. 인도네시아 연구의 고전들을 번역 소개하고, 일반인들에게 인도네시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단행본 저술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출판의 대중노선’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3년 5월 16일 | 심사일: 2013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2일

참고문헌

- 가일스 밀턴 저. 손원재 역. 2002. 『향료전쟁』. 서울: 생각의 나무.
- 고영훈. 2004. 『인도네시아 문학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꾼짜라닝랏 편. 양승윤 외 공역. 2001. 『인도네시아의 고립종족사회』.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김미향. 2011.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교육 연구: 이주노동자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민정. 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형준. 2012.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서울: 이매진.
- 박경중 역(필자불명). 1964. 『수카르노: 위대한 악인의 꿈』. 서울: 신태양사.
- 반 덴 엔드 저. 백성영 역. 2004. 『인도네시아 교회사(상)』. 서울: 아누저라.
- 신명철. 1976. “산림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도네시아의 원목 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신윤환. 2008. 『동남아문화 산책: 신윤환의 동남아 깊게 읽기』. 파주: 창비.
- 신디 아담스 저. 김만기 역. 1967. 『수카르노』. 서울: 동아PR연구소 출판부.
- _____. 정홍진·유완식 역. 1972. 『세계의 대인물전집 6: 수카르노/티토』. 서울: 한림출판사.
- 안드레 블책 외 저. 여운경 역. 2011. 『작가의 망명: 인도네시아의 대문호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와의 대화』. 서울: 후마니타스.
- 안영호. 1976. “말레이지아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_____. 1994. 『인도네시아어학 개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야콥 수마르조 저. 김장겸 역. 2009. 『인도네시아 소설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승윤. 1994.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6.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2. 『작은머느리의 나라: 양승윤 교수의 인도네시아 문화 산책』. 서울: 삼우반.
- 양승윤 외. 1997.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오진석. 1968. “한국의 신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우쓰미 아이코 외 저. 김중익 역. 2012. 『적도에 묻히다: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서울: 역사비평사.
- 유일상. 2011. “초국적 공간의 구성과 이주 전략: 국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사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윤예림. 2007. “국가의 이주노동자 관리를 위한 가족통제정책: 한국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전제성. 2011. “참관기: 제2차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국제학술회의.” 『동남아시아연구』 21(3).
- 전제성 · 유완또. 2013.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 서울: 이매진.
- 최봉호. 1973. “인도네시아 교도 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클리퍼드 기어즈 저. 문옥표 역. 1998.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_____. 김형준 역. 2012.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 인도네시아의 생태적 변화 과정』. 서울: 일조각.
- 해롤드 크라우치 저. 신윤환 · 전제성 역. 2009. 『동남아 권위주의의 역사적 기원』. 서울: 이매진.
- Choi, N. 2004. “Local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in Post-Reformasi Indonesia: a View From Yogyakart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6(2).
- _____. 2007a. “Local Elections and Democracy in Indonesia: The Riau Archipelago.”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7(3).
- _____. 2007b. “Elections, Parties and Elites in Indonesia's Local Politics.” *South East Asia Research* 15(3).
- _____. 2009. “Democracy and Patrimonial Politics in Local Indonesia.” *Indonesia* 88.
- Jeon, Je Seong. 2009. “Strategies for Union Consolidation in Indonesia: the Case of

- the SPSI Maspion Unit 1, Sidaorjo, East Java.” *Labour and Management in Development* 9.
- _____. 2011. “Historical Dynamic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
- Kang, Yoonhee. 2002a. “Endearing or En-daring?: The Pragmatics of Love in a Performance of Honey Collecting Ritual among the Petalangan People in Indonesia.” *Texas Linguistic Forum* 44(2).
- _____. 2002b. “Addressing the Invisible World: Indexicality, Iconicity and the Cultural Concept of Self in Belian, a Petalangan Healing Ritual in Indonesia.” *Texas Linguistic Forum* 44(1).
- _____. 2003. “The Desire to be Desired: Magic Spells, Agency and the Politics of Desire among the Petalangan people in Indonesia.” *Language & Communication* 23(2).
- _____. 2006. “‘Staged’ Rituals, ‘Veiled’ Spells: Multiple Language Ideologies and Transformations in Petalangan Verbal Magic.”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16(1).
- _____. 2007. “Unintelligibility and Imaginative Interpretation in a Petalangan Healing Ritual.” *TEXT & TALK* 27(4).
- Kim, Hyung-jun. 1998a. “The Changing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Indone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9(2).
- _____. 1998b. “Unto You Your Religion and Unto Me My Religion: Muslim-Christian Relations in a Javanese Village.”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13(1).
- _____. 1998c. “The Islamization of Others’ Everyday Life: A Case from Yogyakarta.” *Antropologi Indonesia* 57.
- _____. 2002. “Agrarian and Social Change in a Javanese villag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2(4).
- _____. 2010. “Praxis and Religious Authority in Islam: The Case of Ahmad Dahlan, Founder of Muhammadiyah.” *Studia Islamika* 17(1).
- Kim, Jang Gyem. 2008. “Kajian Semiotik dalam Novel-Novel Mochtar Lubis.” *SARI: Jurnal Alam dan Tamadun Melayu* 26.
- Normaliza Abd Rahim and Kim Jang-Gyem. 2012. “Malay Language among Korean

- Learners of Media.” *Malay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2(3).
- Park, J. B. 2012. “Managing Socio-Economic Crisis in Indonesia: The Role of Interfaith Civic Organisations in Yogyakarta during the 1998 Economic Crisis.”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40(116).
- Seo, M. 2012a. “Defining ‘Religious’ in Indonesia: Toward Neither an Islamic nor a Secular State.” *Citizenship Studies* 16(8).
- _____. 2012b. “Falling in Love and Changing Gods: Inter-Religious Marriage and Religious Conversion in Java, Indonesia.”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41(119).
- _____. 2013. “Missions without Missionaries: The Social Dimension of Church Growth in Muslim Java, Indonesia.”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24(1).
- Shin, Yoon Hwan. 1991. “The Role of Elites in Creating Capitalist Hegemony in Post-Oil Boom Indonesia.” *Indonesia* 51.
- Shin, Yoon Hwan and Y. L. Lee. 1995. “Korea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5(2).
- Song, Seung-Won. 2013. “Being Korean in Buton? The Cia-Cia’s Adoption of the Korean Alphabet and Identity Politics in Decentralised Indonesia.” *Kemanusiaan* 20(1).

부록: 인도네시아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목록(연도순)

- 김영국. 1983.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 Shin, Yoon Hwan. 1989. “Demystifying the Capitalist State: Political Patronage, Bureaucratic Interests, and Capitalists-in-Formation in Soeharto’s Indonesia.” Yale University.
- 양승윤. 199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치참여에 관한 정치사적 연구.” 경남대학교.
- Goh, Young Hoon. 1994. “Pemikiran Pramoedya Ananta Toer Dalam Novel-Novel Mutakhirnya.” Universiti Malaya.
- Kim, Hyung-jun. 1996. “Reformist Muslims in a Yogyakarta Village: The Islamic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Socio-Religious Lif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2007, ANU E-Press).
- Kim, Jang Gyem. 1996. “Citra Tokoh Dalam Novel-Novel Mochtar Lubis, Kajian Struktural-Semiotik.” Universitas Gadjah Mada.
- Je, Deshik. 1997. “Pengembangan Materi Pelajaran Bahasa Indonesia untuk Para Manajer Korea di Jakarta.” IKIP(자카르타 국립교육사범대학교).
-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 경제협력의 중대방안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무역학과.
- Choi, Y(영석). 2001. “Human Capital Investments and Interregional Wage Differences in a Southeast Asian Country: Evidence from 1993 Indonesian Family Life Survey(IFLS) Data.” University of Washington.
- Lee, JH(장호). 2001. “Traditional Medicine, Modern Medicine, and Christianity: A Study on the Realities of Sickness as Described by Balinese Christians in the Gereja Kemah Injil Indonesia in Bali.”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of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 전제성. 2002. “민주화 이행기 인도네시아의 노동정치: 국가조합주의의 붕괴와 노동자 리더십의 등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이춘화. 2002.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정치, 법률, 사회문화적 환경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Kang, Yoonhee. 2002. "Words of the Ancestors, Words for Survival: Marginality, Emotion and the Power of Magical Words among the Petalangan of Riau, Indonesia." Yale University.
- Iym, Young Ho. 2002. "Teksa-Teki Dalam Bahasa Indonesia: Sebuah Kajian Linguistik dan Pragmatik." Universitas Indonesia.
- Choi, Nankyung. 2003. "Democratis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Party Politics in Post-Soeharto Indonesi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Kim, Ye-kyum. 2003. "Living from Hand to Mouth Provided There is Happiness: Life-dynamics of Tomohonese Women, Minahasa, North Sulawesi, Indonesia." University of Hull.
- Cho, Yoonmi. 2005. "Main Hakim Sendiri: Studi Kasus Vigilantism di Klaten, Jawa Tengah pada Awal Era Reformasi." Universitas Gadjah Mada.
- 백두옥. 2007.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법과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
- 이범희. 2007. "한국송입선원의 직무환경요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도네시아선원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 Song, Seung Won. 2008. "Back to Basics in Indonesia? Reassessing the Pancasila and Pancasila State and Society, 1945-2007." Ohio University.
- Kang, Young Soon. 2008. "Antara Tradisi dan Konflik: Kepolitikan Nahdlatul Ulama." Universitas Indonesia(2008. Penerbit UI).
- Park, Jae Bong. 2008. "Preventing Ethnic Violence in Indonesia: Civil Society Engagement in Yogyakarta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1998."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박종호. 2008. "인도네시아 산업조립과 A/R CDM의 투자환경 및 경제성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Lee, Yeon. 2008. "Kepriyayan dan Perspektif Wanita dalam Rangkaian Cerita Kenangan Nh. Dini." Universitas Indonesia.
- 신성원. 2009. "관광산업, 국가 그리고 발리 문화: 발리춤으로 본 전통 만들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Jung, Eunsook. 2010. "Taking Care of the Faithful: Islamic Organizations and Partisan Engagement in Indonesia." University of Wisconsin.
- Seo, M(명교). 2011. "Conversion to Minority: Conversion, Secularism, and the State

Management of Religion in Muslim Java, Indonesia since 1965.” University of Cambridge.

- 박경서. 2011. “인도네시아 진출 FDI기업과 현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교 연구: 기업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확률변경 생산함수 접근법.”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조태영. 2011. “Akasara Serang sebagai Wadah Pembinaan Tamadun Islam di Sulawesi Selatan: Kajian Gramatologi.” Universitas Hasanuddin.
- 강성호. 2012.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항만에서의 모바일하버 적용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 Suh, Jiwon. 2012. “The Politics of Transitional Justice in Post-Suharto Indonesia.” Ohio State University.
- Yeo, Woonkyung. 2012. “Palembang in the 1950s: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Reg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bstract

Indonesian Studies in Korea: The Continuing External Expansion, the Deepening Internal Separation

Hyung Ju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e Seong Je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donesian studies in Korea, which began half a century ago, have rapidly expanded during the past two decades. Based on PhD dissertations, MA theses, journal articles and books on Indonesia written by Korean scholars, this paper discovers a quantitative growth in the researches of Indonesian studies, as well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topic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investigating two major journals of Indonesian study, *Dongnam Asia Yeongu* and *Dongnama Yeongu*, finds a certain breaking off of the researches into distinct categories, by divisible line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visible. For instance, first of all, it seems that the researches are generally divisible into two major categories—researches by scholars trained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researches by those who were trained elsewhere. Secondly, the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he categor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the category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order to narrow the gaps between these researches resulting from the phenomenon of ‘scholarly partitioning’ among Korean Indonesia specialist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using interdisciplinary and inter-institutional approaches to train graduate students, inquiring research topics intersecting from different disciplines, and publishing books and monographs for the general public.

Keywords | Indonesia, Korea, Indonesian specialist, Indonesian studies, Southeast Asian Review, scholarly partitioning